

矯導所 餘暇活動의 社會的 敵對感 및 스트레스 解消 效果*

The Effects of Leisure Programs on Social Hostility and Stress
Reduction of Prisoners at a Correctional Institute

朴 鍾 九**

Park, Joung-Koo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leisure programs on social hostility and stress reduction of prisoners. Data were collected from 85 prisoners in a correctional institute,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preferable leisure activities among the prisoners was the appreciation of the music, followed by watching the movie film and running in the playground. Results also showed that almost all the preferable hypothetical leisure programs made positive effects on reducing social hostility and stress of the prisoners. Finally, it turned out that the prisoners preferred self chosen leisure activities with partners to allocated leisure activities without partners. This suggests that prisoners might have a similar pattern of leisure preference with ordinary citizens.

핵심용어(Key words) : 여가프로그램(Leisure program),
사회적 적대감(Social hostility),
스트레스 감소(Stress reduction)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2007-A0173-00008).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조교수. e-mail: jkpark85@dongguk.ac.kr
(관심분야: 관광개발, 자연공원 관리)

I. 서론

최근 실업률, 경제불황, 빈부격차의 확대 등 경제적인 요인들과 물질주의와 탈선방치, 부도덕성의 팽배 등으로 인해 강력범죄율이 높아졌다.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처벌, 엄격한 법집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윤우석, 2009).

교도소(矯導所)의 주된 기능은 '수형자'(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시켜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수용하는데 있다. 그러나 재소자들은 엄격한 감독과 규율 때문에 억압된 사회적 분노감, 불안, 우울, 피해의식 등을 심리적으로 치유하지 못해, 교도소의 생활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상현, 2004). 또한 자유의 박탈이 순간의 고통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사회와 단절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 수용생활을 원활히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재소자들이 교도소의 수감생활에서 쌓인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출옥 후 해소되지 못한 사회적 분노감은 재차 범죄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이철호 · 이민규, 2007). 예로서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구성원들이 음주운전, 자동차사고, 경솔한 행위, 도박, 음주, 흡연, 약물남용 등에 있어서 비행행동의 반복적 성향을 보였다(이은상, 2003). 교도소의 열악한 수용생활에서 쌓이는 심리적 불안감 및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동을 환경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홍성열, 2002).

교도소의 여가활동들은 재소자들의 상처 난 감정들을 완화시키며(심상신 · 박선기, 2001), 자기 존중감의 향상, 자기인식,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형성시켜 재소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인이다(신상철, 2000). 사회로 부터 격리되어진 채 쌓일 수밖에 없는 염증, 사회적 분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들이 제공된다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활동의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 해소효과와 여가만족도의 영향 등을 밝혀, 궁극적으로 교정행정에 있어서 여가활동이 필수적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사회적 냉대와 모멸감으로

인한 재소자들의 공격적 심리와 수용생활 중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여가활동에 따른 수용생활 만족도의 차이, 둘째, 여가활동의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 해소의 차이, 셋째, 여가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넷째, 여가활동별 여가만족도의 영향 등을 밝히는데 있다.

II. 이론적 고찰

교도소는 철조망, 감시탑, 비좁고 삭막한 시설, 그리고 폭력에 익숙한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있어 부정적 혐오시설로서 인식된다. 사회적 차별과 냉대로 인해 재소자들은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점에 노출된다(변보기·강석기, 2002). 이러한 여건속에서 재소자들은 잘못을 반성보다는 심한 피해의식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수록 수용자의 인성을 바꾸고, 사회적응을 도와서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이 교정행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종교, 교육, 심리적 카운슬링, 직업훈련과 의학적 치료를 통하여 범죄자의 심리적 성향을 근본적으로 치료함이 요구된다(Hewitt, 1970).

교도소의 교화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범죄자들이 갱생할 수 있는 장소보다는 범죄를 위한 학교(Pardeck, 1998), 교도소가 인간을 가두어 두는 장소, 타락한 인간들을 모아둔 창고라고도 한다(이남희·이봉건, 2009). 이러한 주장들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자신보다 더 폭력적인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비인간적인 환경과 자존심이 손상되는 대우를 통해, 교도소에 들어갈 때보다 사회에 더욱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 출옥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Toch, 1993).

재소자들이 비행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 피해자를 비롯해 가족 등 주위 사람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가활동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진 사회구성원들에게 여가 기술과 태도, 체력향상 등 기분전환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공공적 서비스이다(Frye & Peters, 1972).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자유가 제한된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는 교도소 수용자들도 우울하고 불안한 내면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화활동이 필수적이다.

여가활동은 특히 재소자들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해소해 교도소 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높다(심상신·박선기, 2001). 여가프로그램은 죄책감과 규칙위반 행위를 억제 혹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도 촉진시킨다(강미정, 1998; 민경아, 1996). 또한 여가프로그램은 사회적 박탈감(social deprivation)을 없애줄 수 있다. 여가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별 없이 형평한 사회적 기회를 가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박탈감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처럼 여가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소자들의 쌓인 스트레스와 공격적 성향을 줄일 수 있다면 재소자들의 생활적응을 돕고, 나아가 재범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서경아, 1996).

특히, 교도소 재소자들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감과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회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정선옥, 2002), 특정위반행위가 규범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즉 비행허용도가 강할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정선옥, 2002). 따라서 여가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의식의 강화는 타인에게 가해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비행을 뉘우치는데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여가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낙인감의 회색도 가능하다(홍봉선·남미애, 2000). 주위로부터 사회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사회의 쓸모 없는 사회구성원으로 취급되면서 재범이나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주변의 용서와 화해로 기존의 관계 속에 통합될 수 있다면 재비행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가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최영신, 2000).

지금까지 여가레크리에이션 연구의 대부분은 장애인(강미정, 1998)과 노인(이연숙, 2008), 외국인 다문화 노동자(홍상태, 1995), 그리고 비행청소년(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6; 최영신, 2000) 등을 중심으로 교정활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교정학 연구도 대부분 재범방지와 사회적응력 향상(심상신·박선기, 2001),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이철호·이민규, 2006), 교정교육(민경화, 1996; 신양균, 1994; 이영근, 2001)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여가프로그램이 주는 심리적 치유혜택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으며, 단지 여가실태조사에 한정되었다.

교도소의 여가활동은 제한적으로 행해지는 TV 시청과 신문열독 외에 독서활동,

그리고 종교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김효정, 2004). 또한 재소자들은 공간적·시간적 선택권이 없고, 여가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소는 사회에 비하여 낙후된 여가시설, 강요된 여가, 여가시간의 부족, 반복되는 교도소 생활에서 무료함과 권태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재소자들의 자유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실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려주는 강요된 여가로 볼 수 있다.

강요된 여가가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지겨움(boredom)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자유시간 동안 스스로 결정한 여가활동을 할 때에는 지겨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지겨움은 짜증을 통해 공격적 성향과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재소자들의 심리적 상상력을 극도로 위축시킨다. 상상력이 부재한 인간은 자유시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결국은 가장 소극적인 활동인 '잠'으로 그 시간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부담스러움을 해소하려 한다(김효정, 2004; 서경아, 1996).

여가시간을 활용해 자유시간을 자신의 성격과 취향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계획,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된 여가프로그램은 재소자 교육에서 필수적 요소이다(Frye et al., 1972). 상상력이 말살된 재소자들은 이후 사회에 복귀해서도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른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를 거부하고 자유의 가치를 비웃으며, 돈만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알뜰하고 쾌락적이며 상업적인 유흥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생활의 연속은 막대한 금전이 요구되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이들을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변보기·강석기, 2002).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활동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여가(enforced leisure)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교정시설의 여가는 식사와 수면 등 기본적인 신체유지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나마 운동시간과 주말 종교 활동 등이 여가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운동의 경우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활동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강요된 여가일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여가시간 및 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김효정, 2004).

또한 현재 교도소의 여가프로그램은 정신교화와 기초적인 체력유지 차원의 소극적인 운동, 스포츠에 국한되어져 있다. 따라서 교도소 재소자들을 단순히 정신교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넘어서 문화교육, 어학교육, 직업훈련, 학과교육에 이르기까지 쉬고, 공부하고, 취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여가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여가활동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활동에 따른 수용생활의 만족도, 여가활동의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 해소 차이, 여가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따른 선호도 차이, 여가활동별 여가만족도의 영향 등을 밝히는데 있다.

첫째, 여가활동은 일의 피로감과 생태학적 리듬을 회복한다.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친화적 여가활동은 동료의식을 회복시켜 더 이상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고 모욕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충동을 줄일 수 있다(이철호·이민규, 2007). 재미있고, 흥미로운 여가, 즉 교도소의 신체활동, 취미활동, 교양활동 등이 여가시간에 제공된다면 격리된 공간 상에서 겪는 심리적 짜증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교도소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즉 작업시간 외에 여가활동은 휴식시간의 재미와 흥미부여(유태균·이승철, 2002), 여가활동으로 인한 우울증의 해결(박천재, 2001), 자아존중감의 향상(강미정, 1998) 등을 통해 수용생활 중 스트레스, 불안감을 해소시켜 수용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는 각 여가활동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존 여가활동 유형중 혼자하는 활동(solitary activities), 공동으로 하는 활동(joint activities), 공식적 활동(formal activities) 등으로 유형화(Reitzes, Mutran, & Verrill, 1995) 할 수 있다. 교도소의 여가활동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공간이 높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여가영역인, 명상활동, 종교활동, 책읽기, 문예창작 활동 등 혼자하는 여가활동들은 자기정체성의 확인과 자기애의 회복, 상처난 마음의 심리치유 효과 등이 높아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에 효과적일 수 있다(홍성렬, 2003). 반면, 단체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 공동으로 미술품의 제작, 단체로 합창연습 및 연극제작 등은 동료간 인간관계의 향상 및 협동심 등(박천재, 2001)에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여가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은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조직 등으로 구분(박용범·이재형, 2004)되나, 교도소는 공간확보, 건설경비 등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적 접근보다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이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한정한다.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은 어떤 공급주체가 어떠한 여가자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공급목적을 고려해,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홍성희, 2000).

여가활동을 도구적(instrumental), 규범적(normative), 표출적(expressive), 의사소통적(communicative)으로 구분(Hemingway, 1996) 등 연구목적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접근(김애련·한내창, 1997)할 때, 의무로부터 해방, 이익적 동기가 없이 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에 몰입할 때 여가선호도는 높을 것이다(김애련·한내창, 1997). 본 연구에서는 홍성희(2000)의 연구를 토대로 여가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여가선택권의 구분, 여가유형의 구분, 여가활동시 파트너의 유무, 여가멘토링, 여가의 목적차이, 여가주도권의 구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구분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 연구자의 교도소 참여관찰과 교정행정 담당자와의 자문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첫째, 여가선택권의 방식에서 자유재량 선택권 보장 對 인위적 할당, 둘째, 여가활동 유형을 정신적 여가활동 對 육체적 여가활동, 여가활동 시 파트너 유무에 따라 단체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對 혼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 셋째, 여가교육의 멘토링에 있어서 재소자중 재능소유자 對 외부의 민간전문가 활용, 넷째, 여가목적 취/창업 교육 對 지켜움 없애는 활동, 다섯째, 여가주도권의 구분(수동적 통제 對 능동적 주도) 등으로 구분하여 여가프로그램 선호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교화활동 외에 여가프로그램 도입은 교도소의 수용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 [가설 2] 여가활동들은 '사회적 적대감 감소'와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효과들은 차이가 있다.
- [가설 3] 여가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따른 여가선호도는 차이가 있다.
- [가설 4] 여가활동들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2. 자료수집 방법

G교도소를 대상으로 일과시간 외(휴일, 일과를 마친 자유시간)에 제공되는 각종 여가프로그램들이 재소자의 사회적 적대감 및 스트레스 감소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경북 G시에 소재한 G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G교도소는 1973년 개청하여, D시 지방법원 제1심 구속피의자 및 초범수형자를 수용하는 국가교정시설이다. 이곳의 재소자들은 강력범보다는 불우한 가정환경, 충동적인 성격 등에 따른 초범수형자의 비율이 높아, 설문조사가 용이하고, 타 교도소에 비해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연구의 조사대상지로 적합한 편이다.

설문조사는 2008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이루어 졌다. 설문항목들은 연구자가 재소자들을 위한 취/창업 교정위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토대로 G교도소 교화교육과와 협의하에 설문항목들이 만들어 졌다. 또한 D시 교정청의 사전허락과 인권침해 요소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설문시 이에 대한 답례로 선물(검정색 양말)을 제공하였다. 설문시에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개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익명 보장과 설문장소를 수용자 종교집회, 취/창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강의동에서 교도관의 퇴실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표본 85부를 회수(회수율 94.4%)하였다. 타 연구에 비해 샘플수가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G교도소에 수용중인 전체 재소자들의 약 80% 정도가 본 설문에 참여하였다. 또한 기초 데이터 분석결과 정규분포를 보여, 가설검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설문조사 완료 후 2차례에 걸쳐 희망자에 한해 5~6명 정도 참석한 집단면접 방식을 통해 설문조사에서 밝혀지지 않는 질적 자료를 보완하였다.

3.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 교도소의 여가프로그램이란 '일과활동(식사와 수면 등 기본적 신체 유지에 필요한 활동) 외에 작업이나 교육이 없는 자유시간과 휴식시간에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의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여가활동(예: 특별활동, 음악감상, 독서활동, 서예활동, TV 감상, 운동 등) 외에도 종교활동과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재적응(취/창업 등)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컴퓨터, 어학 공부, 자격증 획득교육(취업관련), 개별상담까지 포괄한다. 이러한 여가활동들은 교도소 교화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김효정, 2004; 이철호·이민규, 2007)에서 도출되어, 교도소 여가프로그램 전문가, 교정공무원 등과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수용생활의 만족도는 교도소의 생활상에 불만이 없는 긍정적인 감정상태(이철

호·이민규, 2007)로 정의된다. 교화중심 수용생활의 만족도는 “현행 G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정교화 활동들을 통해 교육, 근로와 직업훈련 등 교도소 생활전반에 대한 흡족한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또한 여가프로그램의 도입 후 수용생활의 만족도는 “기존 교정교화 활동 외에 영화상영, 음악감상(TV시청), 채소가꾸기, 운동장 달리기 등이 추가될 때 교도소 수형자의 생활상 전반에 대해 느낀 흡족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여가만족도는 여가활동 및 종교활동,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재적응(취/창업 등)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컴퓨터, 어학공부, 자격증 획득교육(취업관련), 개별상담 등을 제공할 때 느껴지는 교도소 여가만족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적대감(hostility)이란 특정인이 불쾌한 상황에 직면해 냉소, 분노, 짜증, 공격성 등의 감정들을 통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Vasta et al., 1992). 재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내대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사회에 대한 반발심, 자포자기로 인한 분노감(강신덕, 1997; 서수균·권석만, 2002)으로 조작적 정의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적대감의 감소를 ‘세상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을 막아 준다’라는 항목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라는 7점-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란 교도소의 사회적 고립, 엄한 규정 등에서 오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로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박상규, 2007). 주로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생활부적응,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부적응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해소를 교도소의 수용생활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는데 도움되는 정도라는 항목으로 측정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7점)라는 7점-Likert 단일척도로 조사하였다.

여가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교도소의 여가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특정주제로 관련전문가(교도행정책임자 1인(사무관급), 사회복지사 2인 외에 교정교화 자문위원 2인(교정복지 전공교수 1명과 청소년선도위원 1명))들과 2차례 자문과 협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 상급관청인 D시 교정본부와의 설문허락 과정에서 이러한 항목들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가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은 여가선택권 구분(자유재량 선택권 보장 vs. 인위적 할당), 둘째, 여가활동 유형 구분(정신적 여가활동 vs. 육체적 여가활동), 셋째, 여가활동 시 파트너 유무(단체로 여럿이 여가활동 vs. 혼자 여가활동), 넷째, 여가교육 멘토링(재소자중 재능소유자

vs. 외부 민간전문가), 다섯째, 여가목적(취/창업 교육 vs. 지겨움 없애는 활동), 마지막으로 여가주도권 구분(수동적 통제 vs 능동적 주도) 등으로 구분하여 여가 프로그램의 좋아 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4. 통계분석

교도소 여가활동의 만족도,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 및 영향 요인 등을 SPSS(version 17)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주된 통계방법은 기술통계 외에 각종 여가활동들의 수용생활의 만족도 증가 및 여가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따른 선호도 차이는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의 '사회적 적대감 감소' 및 '스트레스를 해소'의 차이분석은 일원변량분석(ANOVA) 분석 후 Scheffe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여가활동별 교도소내의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자료수집한 응답자(N=85)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이 80명(94.1%)으로, 여성 5명(5.9%)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40대가 35명(41.2%)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기존 여성만을 전담하는 교도소(청주 여자교도소)와 '12~20세 미만인 비행청소년들은 청소년 소년원에서 별도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응답자들은 중년층의 남성 재소자들의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졸자의 비율(48.2%)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혼(43.6%), 죄명은 기타(47.0%) 외에 사기 및 횡령(16.4%), 종교는 불교(31.3%)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G교도소는 타 교정시설에 비해 초범자의 수용빈도가 높고, 직업 교육, 작업, 재소자 취/창업교육 및 여가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교정활동의 일환으로 여가활동의 수용생활 만족도 및 여가활동의 만족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이다.

〈표 1〉 조사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비율(%)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80	94.1	결혼 상태	미혼	37	43.6
	여성	5	5.9		기혼	29	34.1
연령	10대	-	-	동거, 사별 등	이혼	12	14.1
	20대	14	16.5		절도	6	7.0
	30대	19	22.4	폭력(상해 포함)	6	7.0	
	40대	35	41.2	사기 및 횡령	14	16.4	
	50대	12	14.1	죄명	강도	5	5.8
	60대 이상	5	5.9		강도강간	9	10.5
학력	초등학교	2	2.4		과실	5	5.8
	중학교	8	9.8		기타	40	47.0
	고등학교	32	39.6	종교	기독교	23	28.8
	대학교	39	48.2		불교	25	31.3
합계	85		천주교		13	16.2	
			종교 없음		16	20.0	
				기타	3	3.7	

주) 각 수치는 결측치를 제외한 수치임.

2. 가설검정 결과

1) 여가활동에 따른 수용생활의 만족도

[가설 1]처럼 교화활동 외에 각종 여가활동이 도입될 때 교도소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만족도의 증가를 반복 측정된 대응표본 t검증 결과는 〈표 2〉과 같다. 각종 여가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수용생활의 만족도(m=5.17)가 기존 교화활동 중심의 수용생활의 만족도(m=3.38)보다 급격히 증가(평균차이=1.79) 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4.082, p<.000)가 나타났다. 현재 교정 교화 활동들이 자립갱생의 의지를 심어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 근로와 직업훈련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따라서 각종 여가 활동들인 특별활동, 음악감상, 독서활동, 서예활동, TV 감상, 운동 등이 적극적으로 추가된다면 교도소 수형자의 정신건강과 교도소 적응에 효과적일 것이다.

〈표 2〉 여가활동의 교도소 수용생활 만족도 증가

변수	여가프로그램 도입		교화활동 중심		t값(p값)
	수용생활 만족도		수용생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여가활동	5.17	1.058	3.38	1.046	14.082(.000*)

* p<.05 수준에서 유의함

2) 여가활동의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

〈가설 2〉의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의 해소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여가활동별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두 항목 모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각종 여가활동의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 해소는 적어도 각 여가활동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도소의 여가활동중 ‘음악감상’(노래 듣기)(m=5.70), ‘영화상영’(TV시청 포함)(m=5.58),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m=5.45) 등은 세상에 대한 화가 나는 것을 막아주거나, 수용생활 중 쌓이는 우울함을 해소시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비교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감상은 스트레스 해소(m=5.81, st.d.=1.393)와 사회적 적대감 감소(m=5.60, st.d.=1.449)의 두 항목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있었다. 기존 비행 청소년과 교도소 재소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음악치유효과의 연구결과(이희정, 2006)처럼 교도소 내 음악감상은 자율적으로 라디오 및 카세트를 듣는 것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및 작업시간 중 1~2시간 동안 음악방송을 듣는 것을 추가한다면 개인의 성격 유형별 구분과 상관없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소와 긴장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영화상영은 스트레스 해소(m=5.47, st.d.=1.555)와 사회적 적대감 감소(m=5.69, st.d.=1.464)에 비교적 높은 효과가 있었다. 영화상영은 일반 사회에서도 시간이 남을 때, 또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많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어서 특별히 교도소의 재소자에서만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재소자들 또한 교도소에 수감하기 전에 사회에서 영화나 비디오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표 3〉 여가활동의 사회적 적대감 및 스트레스의 해소

항 목	사회적 적대감		스트레스 해소	
	평균(사후)	표준편차	평균(사후)	표준편차
음악감상(노래 듣기)	5.60(a)	1.449	5.81(a)	1.393
시, 수필 등 문예활동	4.67(b)	1.546	4.71(b)	1.661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	5.47(a)	1.555	5.69(a)	1.464
명상활동/ 종교활동	5.32(a)	1.583	5.25(a)	1.588
미술제작 실습(서예실습 포함)	4.65(b)	1.804	4.76(b)	1.652
자격증 획득 교육(취업관련)	5.11(a)	1.589	5.02(a)	1.543
책임기(독후감상문 쓰기)	4.69(b)	1.683	4.62(c)	1.786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5.35(a)	1.461	5.56(a)	1.622
채소가꾸기(화초가꾸기)	5.02(a)	1.512	5.01(a)	1.562
컴퓨터, 어학공부	5.33(a)	1.606	5.34(a)	1.608
	F(9, 840)=4.177, p=.000*		F(9, 840)=5.975, p=.000*	

*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post hoc 검증은 Scheffe 검증을 활용하였으며, a/b는 2개 영역에서 동질적임, a/b/c는 각 여가활동별 구분을 의미함.

셋째, 운동장 달리기는 스트레스 해소(m=5.35, st.d.=1.461)와 사회적 적대감 감소(m=5.66, st.d.=1.622)에 고른 효과가 나타났다. 체육활동은 건강증진 외에도 채소자간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교화효과가 높은 점이 있기에 교도소 내에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생활체육적 기능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다.

반면 출소 후 사회재적응(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컴퓨터, 어학공부(m=5.33), 자격증 획득교육(취업관련)(m=5.06) 등은 채소자들의 재취업을 향상과 사회적 일자리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여가활동의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공격성 저하에는 그리 높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 또한 미술제작 실습(서예실습 포함)(m=4.71), 시, 수필 등 문예활동(m=4.68), 책임기(독후감상문 쓰기)(m=4.65)와 같은 수동적이고 단순한 여가활동들은 두 항목 모두에서 낮은 효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여가활동은 전반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7점 척도로 효과를 측정할 때 그 세부적인 효과들은 비교적 높아 여가활동은 사회적 공격성의 감소와 교도소

의 수용생활 적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선호도 차이

[가설 3]은 재소자들을 위한 각종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여가선택권, 여가유형, 여가파트너, 여가멘토링, 여가목적, 여가주도권)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대응 t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선호도는 여가선택권, 여가파트너, 여가멘토링, 여가주도권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선호도 차이

변인	상황	평균	표준편차	차이	통계치	
					t값	p값
여가 선택권	강제로 교도소에서 여가활동이 지정해 줄 때	2.48	1.623	-3.788	-15.020	.000*
	자유롭게 여러분이 여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6.27	1.179			
여가 유형	정신적 여가활동(예: 독서, 명상, 서예 등)을 할 때	5.86	1.505	.071	.319	.751
	육체적 여가활동 (체육, 달리기, 공놀이 등)을 할 때	5.79	1.551			
여가 파트너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여가활동할 때	5.46	1.687	1.024	3.201	.002*
	혼자서 여가활동할 때	4.44	1.948			
여가 멘토링	재소자 중 가장 잘 하는 사람으로 부터 여가활동을 배울 때	4.64	1.682	-.788	-3.782	.000*
	외부에서 초빙한 민간전문가로부터 여가활동을 배울 때	5.42	1.835			
여가 목적	취/창업교육(자격증 획득) 위주의 여가 활동을 할 때	5.47	1.708	.188	.696	.489
	지겨움 없애는 활동(TV시청, 독서) 위주의 여가활동할 때	5.28	1.763			
여가 주도권	일률적으로 정해진 여가활동을 수동적으로 참여할 때	2.87	1.731	-2.894	-11.765	.000*
	재소자가 직접 여가활동을 능동적 결정할 때	5.76	1.630			

*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첫째, 여가프로그램을 여가선택권의 유무에 따라 강제할당과 자유선택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5.020, p<.000)가 있었다. 즉 재소자들의 자유시간 활용에 있어서 여가활동을 강제적으로 지정해 줄 때 (m=2.48, st.d.=1.623)보다 자유롭게 여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m=6.27,

st.d.=1.179) 더 높은 선호도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교도소의 강제규정 및 감시 등에 따라 여가활동 선택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가활동 자체의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여가선택의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여가파트너의 유무에 따라 개인 단독형(혼자 운동, 음악감상, 서예그리기 등)과 단체 여가형(여럿이 공놀이, 합창하기, 벽 그림 제작 등)으로 구분해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201, p<.002$)가 나타났다. '재소자+3-4명이 함께 어울려 여가활동할 때'(m=5.46, st.d.=1.687)가 혼자 여가활동할 때(m=4.44, st.d.=1.948) 보다 더 높은 선호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도소 생활 자체가 단체 합숙수용시설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빈번해,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여가활동은 개별적 여가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여럿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여가활동 멘토링을 재소자중 잘 하는 동료로부터 여가활동을 배울 때와 재소자+민간전문가가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구분해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782, p<.000$)가 있었다. 즉 외부에서 초빙한 민간전문가로부터 여가활동을 배울 때(m=5.42, st.d.=1.835)가 재소자 중 잘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여가활동을 배울 때(m=4.64, st.d.=1.682)보다 더욱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도소 재소자들도 보다 전문화된 외부 여가멘토링 시스템의 수요가 있고, 평소 접하지 못하는 외부인을 통해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교도소 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교정활동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가주도권을 일률적으로 정해진 여가활동을 수동적으로 참여할 때와 재소자가 직접 여가활동을 능동적 결정할 때로 구분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11.765, p<.000$)가 나타났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여가활동을 수동적으로 참여할 때(m=2.87, st.d.=1.731) 보다는 직접 여가활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때(m=5.76, st.d.=1.630)가 더 선호되었다.

한편 여가유형을 정신적 여가활동(예: 독서, 명상, 서예 등)과 육체적 여가활동(체육, 달리기, 공놀이 등), 여가목적은 취/창업교육(자격증 획득)과 지겨움 없애는 활동(TV시청, 독서) 등으로 구분해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취/창업교육(자격증 획득) 위주의 여가활동을 할 때(m=5.47, st.d.=1.708)가 지겨움 없애는 활동(TV시청, 독서) 위주의 여가활동할 때(m=5.28, st.d.=1.763)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활동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여가활동별 여가만족도의 영향

[가설 4]의 각종 여가활동들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4개의 변인들만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F(10, 74) = 3.302, p < .002$)을 미쳤다(〈표 5〉 참조). 전체 모델식은 $R^2 = .302$ 로 약 30.2%의 설명력을 지녔다. 여가활동별 여가만족도에 영향정도는 운동장 달리기($\beta = .392, t = 2.779$), 영화상영($\beta = .290, t = 2.3487$), 음악감상($\beta = .229, t = 2.040$), 명상활동/종교활동($\beta = .274, t = 2.004$) 순이다.

〈표 5〉 여가활동별 여가만족도의 영향

항 목	여가만족도				
	B	표준오차	베타	t값	p값
상수	.996	.981		1.015	.313
음악감상(노래 듣기)	.315	.155	.229	2.040	.045*
시, 수필 등 문예활동	.206	.152	.165	1.353	.180
영화상영(TV 시청 포함) 감상	.383	.163	.290	2.348	.022*
명상활동/ 종교활동	.355	.177	.274	2.004	.049*
미술제작 실습(서예실습 포함)	.156	.179	.142	.871	.387
자격증 획득 교육(취업관련)	.036	.179	.028	.200	.842
책읽기(독후감상문 쓰기)	.153	.147	.138	1.041	.301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472	.170	.392	2.779	.007*
채소가꾸기(화초가꾸기)	.138	.179	.112	.774	.441
컴퓨터, 어학공부	.094	.145	.079	.647	.520

$R = .550, R^2 = .302, F(10, 74) = 3.302, p < .002$

첫째, 교도소에서 ‘운동장 달리기’란 신체적 여가활동이라기 보다 기초적 수준의 생활체육 활동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교도소에서 체육활동은 1일 법정운동시간(행형법시행령 제96조)은 30분 정도로 단순히 걷거나 맨손체조만을 할 수 있는 협소한 체육시설만을 갖춘 실정이다. 재소자들은 신체활동을 다른 어떠한 여가활동보다 여가만족도가 높은 활동이다. 따라서 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축구, 탁구 외에도 흥미가 높으면서 전신 운동효과가 높은 다목적 헬스장과 각종 운동기구를 구비해 즐거움이 가미된 운동활동(농구, 배구 등 공놀이는 물론이고 에어로빅체조,

댄스스포츠, 조깅 등) 등을 도입하여 여가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다.

둘째, 영화상영도 체육활동 다음으로 높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TV시청과는 달리 영화상영은 시설(장소), 예산, 시간 등 제약 조건이 수반되나 인권, 환경, 역사다큐멘터리, 문화영화 등 유의한 교정콘텐츠를 지닌 영화들은 지루한 교도소 생활에 활력을 줄 것이다. 또한 재소자들이 자체 제작한 영화제작물을 특별활동시간에 넓은 강당이나 교회당에서 상영한다면 타 교화 프로그램에 비하여 교화효과가 높을 것이다.

셋째, 음악감상은 수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활동(김효정, 2004)이란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가만족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CD 플레이어, 카세트 등 음악장비의 개인소지가 금지된 상황에서 교도소의 교화방송에 정서순화에 효과적인 음악을 틀어 줄 필요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재소자 자체 보컬활동이나 음악클럽 등 공연중심의 문화이벤트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높다.

넷째, 명상활동/종교활동($\beta=.300, t=2.554$)은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교도소에서 각종 종교별로 주 1회 집회를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도소 내 목사, 승려, 신부 등 성직자나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종교인을 초빙하여 종교집회, 신앙상담, 자매결연 주선 등 종교생활이 여가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여가소외계층으로 보고, 자유의 박탈 자체가 어떠한 형벌보다 훨씬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징벌일 것이다.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일반 사회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수준의 여가프로그램이 교도소에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여가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여러 여가소외 계층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소에만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이슈를 야기할 것이다. 주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화활동 외에 각종 여가활동이 도입될 때 수용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교정활동들은 교육과 근로와 직업훈련중점에서 특별활동, 음악감상, 독서활동, 서예활동, TV 감상, 운동 등을 확대한다면 재소자들의 정신건강 및 교도소 적응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의 해소에 있어서 '음악감상'(노래 듣기), '영화 상영(TV시청 포함)', '운동장 달리기'(공놀이, 철봉운동, 근력운동) 등은 세상에 대한 화가 나는 것을 막아주거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비교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감상은 교도소라는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 감소 및 공격적 충동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노여움, 불안, 상실된 사랑, 낮은 희망감 등에 대한 치유효과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에 음악감상 자체가 재소자들에게 타 여가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활동이고, 전문적인 여가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활동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서 여가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반면 출소 후 사회재적응(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미술제작 실습, 문예활동, 책읽기 등의 수동적이고 단순한 여가활동들은 낮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사회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일반인도 이와 같은 여가패턴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교도소의 여가활동은 일반 사회와 다를 것이라는 편견이 더 강요되는 현실인 것 같다.

셋째, 여가활동을 자유재량 선택권 보장하며, 재소자 개인 혼자보다는 재소자 + 3-4명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여가활동을 할 때가 더 선호되었다. 또한 여가교육자의 멘토링에 대한 외부에서 초빙한 민간전문가로부터 여가활동을 배우면서 재소자가 직접 여가활동을 능동적 결정할 때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도소의 자유시간대에 여가활동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운동장에서 축구, 탁구 외에도 흥미가 높으면서 전신 운동효과가 높은 다목적 헬스장과 각종 운동기구를 구비해 즐거움이 가미된 운동활동(농구, 배구 등 공놀이는 물론이고 에어로빅체조, 댄스스포츠, 조깅 등) 등을 도입하여 여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가만족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족구(부산교도소), 발마사지(천안개방교도소), 비만클리닉(청주여자교도소) 등의 체육프로그램들이 소수의 교도소에서만 운영 중인 것을 보다 많은 교도소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반면 정신교육, 학과교육, 그리고 서예 등은 높지 않은 여가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교화활동은 나름대로 의미 있고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은 높을 것이다. 교정효과는 재소자들이 재미있게, 흥미 있게 참여하면서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익힐 수 있다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적대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단일항목을 활용해 구성개념들을 측정하였다. 이들 용어들은 다소 추상적이며, 다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가급적 다항목(multi-items)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편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초범과 재범이상, 범죄유형, 그리고 재소자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통해 여가활동 외의 타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초범과 재범이상, 범죄유형, 재소자 인구통계적 요인 등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편의 추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외 여가만족도의 예측변인으로 이러한 중요변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유가 억압된 특수한 상황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자유선택권, 외부인에 의한 여가멘토링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도소의 특성상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교도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교도소 여가프로그램들은 범죄자들의 공격성, 스트레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교도소 적응과 교도소 생활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범죄행위는 여가프로그램의 효과 외에 사회적 환경들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가프로그램의 효과를 출소 후 재소자들의 생애연구, 추적연구, 장기간의 종적(縱的) 연구를 병행하여 교도소 밖의 사회적 환경여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 원예, 연극공연, 미술치료 등 각종 세부적인 여가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하여 각 여가치유효과를 실질적으로 밝히는 후속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정(1998).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신덕(1997). 비행청소년분노조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애런·한내창(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75-288.
- 김효정(2004).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 연구」(보고서 2004-04).
- 민경화(1996). 교정교육 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규(2007). 교도소에 수용중인 비행청소년에 대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효과. 『한국심리학회』, 21(3), 1-12.
- 박영신·김의철·탁수연(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2(2), 45-76.

- 박용범·이재형(2004). 여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189-1192.
- 박천재(2001). 여가, 레크리에이션: 여가 참여 자유도와 여가 활동 동료의식이 인지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미치는 상호작용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0(3), 299-308.
- 변보기·강석기(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 서경아(1996). 적극적인 음악치료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권석만(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2), 478-500.
- 신상철(2000). 수형자 사회복귀의 효율적 발전방향. 『교정문집』, 1, 568-578.
- 신양균(1994). 「미결수용자 처우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상신·박선기(2001). 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의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사회적응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0(2), 297-506.
- 유태균·이승철(2002). 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의 교정레크리에이션 환경만족과 여가몰입, 자아존중감과 관계. 『한국체육철학회』, 10(1), 1-18.
- 윤우석(2009). 경찰력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 201-230.
- 이남희·이봉건(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 비행축발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3(2), 127-140.
- 이상현(2004).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연숙(2008).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증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2), 343-364.
- 이영근(2001).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발전방안. 『교정연구』, 13, 187-206.
- 이은상(2003). 정서표현갈등, 사회적 지지지각, 대처방식, 그리고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철호·이민규(2006). 교도소 수형자의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20(1), 77-90.
- _____ (2007).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형자의 분노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1(1), 35-46.
- 이희정(2006). 비행청소년과 교도소 재소자의 성격유형별 음악적 상호작용과 음악선호도. 『발달심리학회 논문집』.
- 정선욱(2002). 가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 및 또래관계에

-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 149-172.
- 최영신(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보고서 97-03).
- 홍봉선·남미애(2000). 소년사범 절차상의 처우와 정서적 반응 및 비행교정성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검·경찰에서의 초기 사범처리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7(1), 195-219.
- 홍상태(1995).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여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산업기술연수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7, 185-199.
- 홍성열(2002). 범죄인의 4가지 공통심리. 『교정연구』, 17, 271-288.
- 홍성희(2000). 중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시설의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16.
- Frye & Peter, A. (1972). *Therapeutic Recreation Servic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Hemingway, J. L. (1996). Emancipating Leisure: The Recovery of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 27-43.
- Hewitt, J. (1970). *Social stratification and deviant behavior*. New York: Random House.
- Pardeck, J. T. (1998). Social treatment through an ecological approach.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16, 92-104.
- Reitzes, D. C., Mutran, E. J. & Verrill, L. A. (1995). Activities and Self-Esteem: Continuing the Development of Activity Theory. *Research on Aging*, 17, 260-277.
- Toch, H.(1993). *Violent Man: An Inquiry in The Psychology of Violen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asta, R., Haith, M., & Miller, S. A. (1992). *Child Psychology: The modern sci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9년 9월 1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09년 10월 14일 1차심사완료

2009년 12월 7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09년 12월 10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